한국, 여권지수 세계 3위 … 191개국 무비자 방문

한국 여권으로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가 191개국에 달해 글로벌 여권 순위에서 3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 는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가 최근 발표한 '헨리 여권지수' 를 인용해 이와 같이 전했다.

여권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방문하거나 입국 시 비자 발급 등 사실상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지수화한 것이다. 한국은 글로벌 여권 순위에서 2013년 13위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부터 2위 또는 3위로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북한은 무비자 또는 사실상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39개국에 그쳐 108위를 기록했다.
북한 뒤로는 네팔(38개국), 팔레스타인(37개국), 소말리아(34개국), 예멘(33개국), 파키스탄(32개국), 시리아(29개국), 이라크(28개국), 아프가니스탄(26개국) 등 8개국밖에 없었다.

글로벌 여권 순위 1위는 일본으로 193개국을 사전에

▲ 한국 여권이 글로벌 여권 순위에서 3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shuterstock

비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었다. 2위는 싱가포르(192개국)였고, 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이하 각 190개국)이 공동 4위를 차지했다.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이번 여권지수는 이론적으로 갈 수 있는 국가 수를 셈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입국 제한 상황을 반영하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여권 순위 1위인 일본은 입국 제한 여건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 갈 수 있는 나라는 75개국으로 줄어들어 사우디아라비아(71위) 여권과 순위가 같아진다.

유통·식품업계 코로나발 희비 엇갈려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 기대감으로 하반기 실적 회복을 노린 유통·식음료 업계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으로 희비가 갈렸다.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집밥' 을 대체할 가정간편식(HMR), 라면 등 생필품 매출이 급등한 데 반해 모처럼의 실적 반등을 기대했던 주류·화장품 업계의 한숨은 깊어졌다.

13일 '서울신문' 이 온라인쇼핑몰 '11번가' 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거리두기 격상 발표 하루 전날인 8일부터 지난 12일 간 라면 매출은 직전 5일 대비 43% 늘었다. 특히 대표적인 가정간편식(HMR)의 일종인 밀키트 매출은 386% 폭등했다.
11번가 관계자는 "아이들의 등교가 이뤄지지 않고 6시 이후 3인 모임 제한으로 집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HMR 구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반면 주류업계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주류 업계는 7~8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영업용 맥주 시장을 겨냥한 프로모션을 준비 중이었으나 사실상 '올 스톱' 됐다.
맥주 업체 관계자는 "연매출 30% 이상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3분기에 발생한다." 면서 "거리두기 완화로 매출 회복을 기대했는데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고 했다.

보복소비 수혜주로 꼽혔던 화장품 업계도 울상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적 회복이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다.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이제 겨우 회복세인가 싶더니 (4차 대유행으로) 회복을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13일 '한겨레' 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5.0%) 오른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론 191만4,440원으로, 올해 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이 올랐다.

지난해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작성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 급여 인상 수혜를 보는 노동자는 436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

앞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지난달 24일 각각 1만800원과 8,72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양쪽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지난 8일 다시 한 차례 1만440원과 8,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날도 노동자위원은 1만320원에서 1만 원으로, 사용자 위원은 8,810원에서 8,850원으로 두 차례나 더 요구안을 재수정하며 밀고 당기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양쪽이 더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이 9,160원 단일안을 제시했고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3%로, 박근혜 정부(7.4%) 수준이 됐다. 2018년과 2019년엔 인상률이 각각 16.4%와 10.9%로 크게 올랐으나 2020년과 2021년 각각 2.87%와 1.5%로 급락한 결과다.
최저임금 수혜자 역시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지난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462만명, 500만명이었다가 인상률이 급락한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415만명과 407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시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ONE REALTYONEGROUP
Since 1978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확실히 도와드립니다. 남가주 전지역
"리스팅 환영 합니다"
주택,아파트,상가,매매 및 투자상담
미래의 은퇴를 위한 확실한 투자를 소개합니다.

Douglas Moon
Broker Associate
DRE Lic: 00622281

빌라팍 주택	얼바인 주택	욜바린다 주택	부에나팍 주택	욜바린다 주택	애나하임힐스 주택	싸이프레스 4유닛
방4 화2.5 2,643 sf Water fall, pool 넓은 주거공간, 동네 분위기 최고, 고급 주택동네 좋은학군, 교통 Exquisite Home	방4 화2.5 2000 년생 넓은 매스터 룸, 확트인 부엌, 교육도시 잘 정비된 정원 Pool, 카바나 클럽 Gated Community	방4 화2.5 2,498 sf 업그레이드 된집 조용하고 안정된 동네 교통편리, 샤핑, 학교, 산책 Trail, 공원 가까움	방3 화2 1,827 Sf Lot size 3,615 Sf 편리한 교통 한인타운 가까움	방4 화2.5 2002년생 건평: 2,334 Sf 퀄러티 셰어홈, 최고 거주 넓고 환한 리빙/베드룸/부엌 교육 지역, 쾌적,안전한 동네	방4 화2 건평: 1,979 Sf 밝고 넓은 부엌, 베드룸 공원근처, 교통편리 교육도시, 최고 주거지역	년 인컴 $89,940 방3 화2X1 방2 화1x3 학교 근처, 좋은 학군 교통 편리 한인 타운 근처
$1,249,000	$1,100,000	$999,000	$799,999	$899,000	$950,000	$1,649,000

플러튼 6유닛	애너하임 9유닛	에나하임 6유닛	플러튼 2유닛	헌팅턴비치 2유닛	코스타메사 3유닛	코스타메사 2유닛
인컴 $108,840 방2 화1X2 방 1 화1X4 한인 타운 근처, 교통 편리 렌트 선호지역, 많은 포텐셜 갖고 있음	년 수입 $194,580 방2 화1 X9 구성 비율 최고 넓은 주거 공간, 완전 리모델 편리한 위치, 넓은 주차	년 인컴 $124,140 방3 화2 X1 방2 화1 X3 방1 화1 X2 부엌/화장실 리모델 교통 편리, Great Unit Mix Many Upsides	년 수입 $51,000 방2 화2X1 방2 화1X1 구성비율 최고 렌트 선호지역 교통 편리, 한인 타운 근처	년 인컴 $49,500 방2 화1x1 방1 화1x1 렌트 선호지역 비치 가까움 좋은 학군, 교통 편리	년 수입 $48,900 방2 화1X3 차고, 파킹 충분, 좋은 위치, 렌트 선호지역, 가능성 많음, 교통 편리	년 인컴 $51,600 방2 화1 방1 화1 렌트 선호지역, 교통편리 충분한 파킹, 학군 좋음
$1,780,000	$2,950,000	$2,000,000	$975,000	$879,000	$1,200,000	$859,000

714.336.1983 dmoon4989@gmail.com
*위 매물은 좋은 가격과 좋은 유닛 구성 비율 그리고 좋은 투자 가능성의 요건 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밖에 많은 주택 그리고 좋은 수입을 창출하는 적은 유닛과 아파트가 있습니다.